

450억대 상무지구 옛 토공사옥 팔릴까



부동산 경기 최악 속 매각 공고

토지공, 광주시에 매각 타진도

‘과연 팔릴 것인가.’

감정가 450억원짜리 옛 한국토지공사 전남본부 사옥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주인이 누가 될지 업계의 관심이 끌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옛 한국토지공사 사옥을 비롯한 전국 10개 사옥의 매각 방법 및 입찰 일정 등을 담은 매각 공고를 냈다.

토공 광주사옥은 지난 2007년 세워진 지상 13층·지하 2층짜리 건물(연면적 2만1천816.88㎡)로, 감정가는 455억 원(820만원/㎡)이다.

토지주택공사측은 오는 7일까지 입찰신청서를 받은 뒤 8일 경쟁 입찰

을 실시,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요즘 같은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400억원 넘는 대형 매물을 찾는 이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상무지구에 위치한데다, 공항·터미널 등으로 접근 성도 뛰어나다는 점 등 입지 여건에도 불구, 인근에 들어선 대형 빌딩의 저조한 임대율과 사무실 공실률을 고려하면 매수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앞서 인근 대형 상가 건물에 입점한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7차례나 유찰되면서 감정가(68억)의 18%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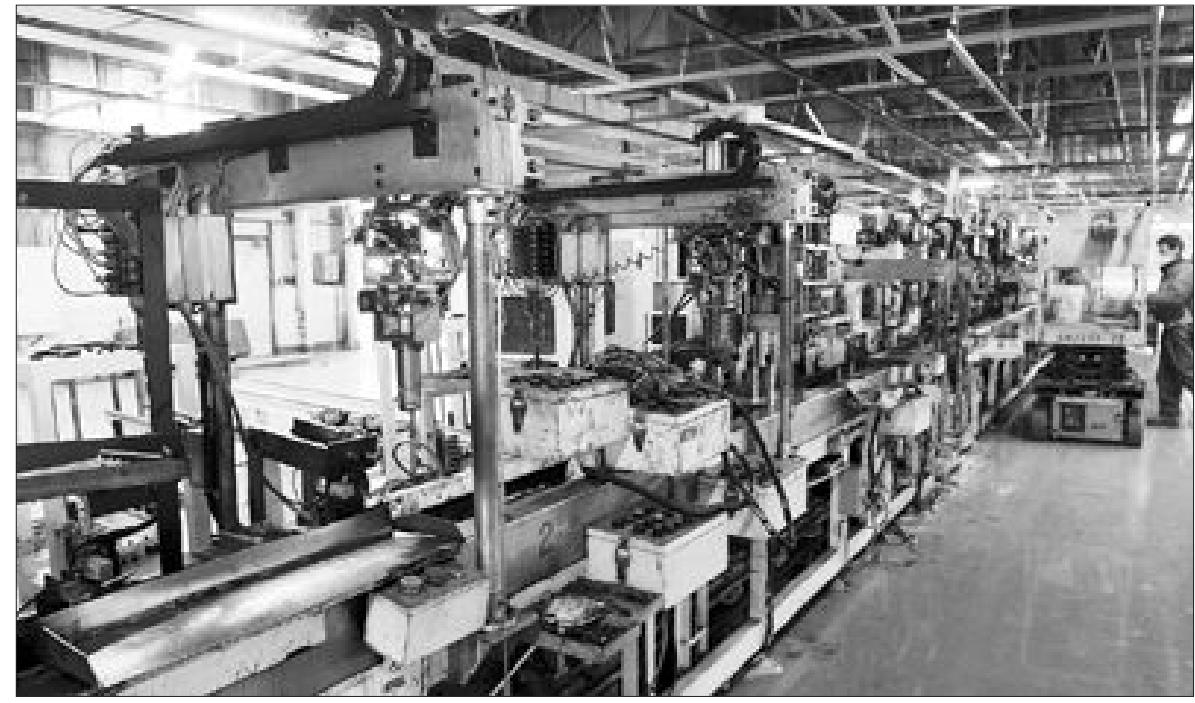
인 12억4천만원에 경매가 진행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바닥인데, 어느 투자가 관심을 보이겠느냐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역 부동산 경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대형 매물인데다, 주변 사무실도 빈 곳이 많아 누가 선뜻 투자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에 따라 광주시에 제2첨사 용도로 매각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하지 않은 상황이다.

토지주택공사는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옥 매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통합하면서 생긴 잉여 자산 처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매각 공고가 나간 뒤 건물 내 주요 설비 등을 묻는 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대우일렉트로닉스 직원들이 1일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옛 대우모터 공장에 냉장고 생산에 필수적인 압축기 설비 이전 작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우일렉 냉장고 라인 광주 이전 한창

이주 200여 임직원 숙소 마련

대우일렉트로닉스 백색가전 부문의 광주공장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냉장고 생산에 필수적인 압축기 설비가 지난달 말부터 옮겨오기 시작했으며 광장 내 라인 재편 작업도 진행 중이다.

1일 지역 가전업체에 따르면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최근 관할 구청에 공장 증축 허가를 내고 백색가전 부문의 광주공장 집적화를 위한 재편 작업에 들어갔다.

대우일렉은 지난달 26일부터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옛 대우모터 부지

등 6개동(연면적 2천400.37㎡) 규모의 공장 증축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미 냉장고 생산에 필수적인 압축기 설비도 지난달 말부터 옮겨오기 시작했으며 광장 내 라인 재편 작업도 진행 중이다.

대우일렉은 기존 대우모터 부지에 냉장고 압축기 설비 구축을 완료하고 광주공장 내 전자레인지 등 주방기기 공장을 소형 냉장고 생산 라인으로 바꿔 내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내년 초까지 라인 교체가 이뤄지면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세탁기, 냉장고 중심으로 바뀌면서 광주공장은 글로벌 백색가전의 핵심으로 거듭나게 된다.

대우일렉은 이와 함께 인근 아파트 50여채를 임대하는 방안 등 광주공장으로 옮겨올 200여명의 직원 숙소 물색에도 나선 상태다.

지역 가전부품업체 관계자는 “대우일렉 광주공장이 백색가전을 중심으로 집적화되면 가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패스트트랙 6개월 연장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 시한을 내년 상반기로 6개월 미루기로 했다. 연말 까지 한시적인 조치였던 중기대출 신용보증 확대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도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키로 했고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예상보다 늦출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작년 리먼 사태 이후 취했던 각종 위기관련 조치들이 당초 예상됐던 내년 초에서 뒤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말까지 한시적인 조치였던 중기대출 신용보증 확대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현재 95% 수준인 은행 지급보증율을 한계에 85%로 되돌리기보다 순차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두바이 사태 여파로은 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의 만기 연장도 고민했지만 정부와 논의를 통해 중단 키로 결정했으며, 중기대출 자동 만기연장은 예정대로 연장됨에 중단하되 만기연장률이 급격히 낮아지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중기대출 신용보증 확대 조치를 유지하다가 내년 하반기부터 정상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값오른 한우, 사육 늘었다

호남지역 한·육우 78만마리…9년 새 8.1% 증가

한우 산지가격 상승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사육농가의 규모화 등의 영향으로 호남지역(광주, 전남·북, 제주)에서 사육되는 한우와 육우의 마리 수가 지난 2001년에 비해 8.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한우·육우 사육 마리 수는 78만 마리로, 전국 264만1천 마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8년 전인 2001년 9월 37만5천 마리에 비해 567만 마리가 각각 증가했다.

최대치에 해당된다.

한우·육우는 달리 젖소 사육 마리 수는 수익성 악화와 사료 값 상승 등으로 사육포기 농가가 늘면서 2001년 9월 9만2천 마리에 비해 2만2천 마리나 감소한 7만 마리로 나타났다.

돼지 사육 마리 수는 248만8천마리로, 2001년 9월 22만4천 마리에 비해 28만4천 마리, 닭 사육 마리 수도 3천 643만 마리로, 2006년 9월 3천76만 마리에 비해 567만 마리가 각각 증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금호타이어, 獨 ‘iF 디자인 어워드’

금호타이어가 세계 4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10’에서 콘셉트 타이어로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금호타이어는 1일 “전 세계 39개 국, 1천61개 회사에서 모두 2천486 개 제품을 출품한 가운데 금호타이어는 ‘첨단연구’부문에서 콘셉트 타

이어를 출품, 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지난 1954년 시작된 뒤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성·미래 브랜드 가치까지 심사 기준으로 고려해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아차 ‘쏘울’ 해외질주 가속

지난달 수출 33% 급증…10,418대 판매

기아차 광주공장이 만든 쏘울이 해외 시장에서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기아차는 1일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쏘울의 판매 대수는 모두 1만1천 733대로, 전달(9천360대)보다 2천 373대(25.3%)가 늘었다”고 밝혔다.

쏘울은 내수의 경우 지난달 1천315 대가 팔려 전달(1천502대)에 비해 대소 감소한 반면, 해외 수출 물량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쏘울은 지난달 해외에서만 1만418대가 팔리는 등 지난 9월에 이어 한 달 수출 대수가 또 다시 3만 대를 돌파했다. 전달(7천858대)에 비해 2천560대(32.6%) 늘어나는

등 누적 수출 대수만 8만7천421대에 달한다. 개성 있는 디자인과 성능 등으로 북미 시장의 인기가 꾸준한데다, 유럽 일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책도 쏘울 수출량 증가에 한몫했다.

현현, 기아차는 지난 11월 내수 3만 8천687대, 수출 12만7천927대 등 총 16만6천614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겪은 내수는 48%, 수출은 20% 증가했으며, 전체적으로도 25.5% 판매가 늘어났다.

이달 초부터 본격 출고된 준대형 세단 K7은 총 1만대가 계약됐다. 1~11월 기아차 전체 누적 판매량은 136만7천499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7.4% 증가했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코스피지수	1,569.72 (+14.12)
코스닥지수	469.04 (+4.72)
금리(국고채 3년)	4.05% (-0.05)
원·달러 환율	1,161.10원 (-1.7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벤치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번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질좋은 경매를 실시한 후 수익성이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면사업/월별 대표이사 010-7570-7525

속력사업/상가 손해액면사 010-8811-2817

공장/토지 대표번호 010-4848-2142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운영시간 09:00~17:00

주말

휴일

점검

점검</p